

민주 '체포동의안' 자율투표로... 이탈표 최소화 주력

의원총회 개최...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내부 결속 강화 이재명 "부정 없었다" 결백 강조... 총의로 부당성 확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개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정한 가운데 내부 결속 강화에 당력을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27일 본회의 표결까지 내부 결속 강화를 통해 이탈 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10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온다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의총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특수부 인력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없는 죄까지 만들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총에서 "성남시와 경기도 일을 하면서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게 영장에서 드러났다"며 결백을 강조한 데 이어 "몇 년 동안 검사 70여 명을 동원해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음에도 이재명 돈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영장에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역사의 분기점이다. 제 부속으로 대선에 패배해 사회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 정쟁이 일상화되고 죽이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당내 결집을 호소했다.

박성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총에서 "성남시와 경기도 일을 하면서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는 게 영장에서 드러났다"며 결백을 강조한 데 이어 "몇 년 동안 검사 70여 명을 동원해 수백 곳을 압수수색했음에도 이재명 돈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영장에도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역사의 분기점이다. 제 부속으로 대선에 패배해 사회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가 퇴행하고 있다. 정쟁이 일상화되고 죽이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당내 결집을 호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에 이번 체포동의안 재가는 통상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면서 "대선 경쟁자였고 원내1당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승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며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조차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대표도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개별 접촉하는 등 단일대오 형성에 공을 들였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오늘 확인된 의원들 총의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서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면서 내부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 지역민심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기명 투표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탈 표가 가결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두자리 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이탈 표가 5표 이하이면 이 대표 및 당 지도부의 결속 노력이 위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두 자리 수 이상이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친명·비명간의 상당한 갈등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에선 총선 공천 문제와 연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정치적 좌표 찍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되더라도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지지율 하락세에 더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등이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의총 "체포안은 부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여론조사 분석 동향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국민의힘 '퇴장'

원청 기업 책임 강화법... 법사위 계류 뎀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철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순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도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자 안전조정위에 참여한 민주당 전용기의

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확률이 높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활용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돼도 정부·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재외동포 '고향사랑 기부' 참여 근거 마련

이형석 의원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21일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주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행안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과



정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은 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해외동포 등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이 제약을 두지 않았음에도 시행령과 시스템이 만든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730만명의 재외동포가 기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행안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평가 라운지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근로자 의견 수렴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민호(더민주·순천2)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2일 순천에 위치한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근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의원을 비롯, 박원중(더민주·영광 1)이 참석하고 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물환경과·환경관리과·산림휴양과 직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전남도는 오는 5월 준공 예정인 동부 2청사와 관련, 7월 개청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중으로 김영록 전남지사 공약에 따라 기존 환경산림국 외에 분청(무안군 소재)에 있는 3개 실·국(준국 포함)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도 이 같은 점을 감안, 최근 동부 2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전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조례의 골자는 월세로 원룸 등을 빌리는 공무원들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순천지역 주택을 사들이어야 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8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비용도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2>신축원룸(상가) 매매</h2> <p>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p> <p>▶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용7억)</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 ▶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 ▶ 급매 - 7억 (용4억)</p> <p>(보3천, 월수익 380만)</p>	<h2>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td> <td>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td> <td>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남구 사동 (토지)228평 ▶</td> <td>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td> <td>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td> </tr> <tr> <td>나주 봉화면 (과수원) ▶</td> <td>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 ▶</td> <td>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장성 북이면 (잡종지) ▶</td> <td>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td> <td>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able>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h1>010-6670-9800</h1>		<h1>010-2614-9801</h1>																